



민선 9기 제주도정 예산 4615억 추가 투입

제2회 추경 편성... 기정예산 대비 5.76% 증액
미집행 사업비·세외수입·국고보조금 등 활용
소비 촉진·경제 활력·소상공 지원에 집중 투입

민선 9기 제주도정이 4600억여원을 추가 투입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회 추경은 기정예산 8조 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증가한 8조 4747억원이다.

2회 추경은 일반회계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각각 기정예산 대비 3829억원(5.82%)과 786억원(5.50%)이 늘었다.

앞서 위성곤 지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민선 9기 도정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추경 마련을 위해 세외 수입 434억원, 국고보조금 등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끌어다 편성했다.

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 예산 384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재투지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한 15분 도시사업 재원이 있다.

이미 위 지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15분 도시사업 추진단을 폐지하

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경 예산은 ▷소비촉진·경제활력 ▷소상공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촉진과 경제 활력 등을 위해 ▷탐나는 전 발행 지원 420억원 ▷중장년·공공근로사업 34억5000만원 ▷공공배달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6억5000만원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 ▷제주관광감사 프로모션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 10억원 ▷대환대출 10억원 ▷이차보전 지원 60억원을 각각 편성했고, 고유가로 위기를 맞은 어업인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어업인 유통비 85억원

6000만원, 버스·택시업체 유통세 보조금 3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농로, 배수로, 인도, 가로등 등 주민 민원과 재해예방·안전 시설 설치 등 소규모 공사에도 370억원을 투입한다.

새 도정 공약과 국정과제 연계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입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제2회 추경안은 오는 21일 개최하는 제45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도는 제2회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위성곤 지사는 11일 민선 9기 출범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도 제공

위성곤 지사 지난 11일 첫 타운홀미팅 개최 경제·민생 등 16개 분야 의견 청취

민선 9기 제주도정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첫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A에서 민선 9기 출범 타운홀미팅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를 열고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민생 현안과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자생단체장 등 초청 인사와 사전 신청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제주도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행사에서는 민선 9기 도정의 핵심가치와 주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사전 신청 과정에서 접수된 165건을 분석해 16개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도출했다.

가장 많은 제안은 경제·민생·소상공인 분야로, 금융 부담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관광 분야에서는 야간·무장에 관광 확대와 관광 안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돌봄·보육, 청년, 공공의료, 제2공항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어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전 제안 가운데 관심이 높았던 농산물 가격 안정, 로컬기업 육성,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현장 자유대화에서는 제주해녀 문화의 기록과 전승, 무장에관광 기반 확충, 제주4·3의 세계화와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대응 방안, 제2공항 장기 지연 피해 주민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오소범기자

“채무 비판해놓고 시작부터 공무원 증원... 이율배반”

도의회 행자위, 위성곤 도정 조직개편안 비판

실질채무가 2조8500억원이 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 증원에 나서자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등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위성곤 도정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들은 위성곤 도정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은 통합

하면서 민선 9기 핵심정책을 담당할 기능은 확대·신설해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고 기존 조직을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도의 실질채무가 2조 8579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각종 사업 축소와 조직 축소 밖에 없다”며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지방



강성의 위원장

채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3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144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며 “민선 9기 출범부터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결단이 필요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 나타났다.

제8회 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 때와 비교 비교하면 1인당 지출액이 3100여만원 증가했다.

교육감 선거에선 고익숙 교육감과 김광수 전 후보, 송문석 전 후보 등 3명이 11억80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3억9000여만원이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 총 53억원 비용 지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3억13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 총액은 53억 2000여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제주지사사와 문성유 전 국민의힘 후보, 양윤영 전 무소속 후보 등 3명이 총 9억38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1인당 평균 3억1300여만원을 쓴 것으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3일 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이며 기존 조직과 겹치는 분야도 많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기존 대변인실 쪼개기, 기본사회추진단과 기존 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공무원 증원은 정부 정책에 따른 증원이며 이번 조직개편은 AI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했다”며 “지방채무는 행안부 기준 관리채무비율 21%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4대 종교계, 생명존중 공동체 조성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4대 종교계가 도민 화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도정과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해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관진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장, 김경진 원불교 제주교당 교무, 휴

완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송승진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국장 등 개신교·원불교·불교·천주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제주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도정에 협력하고 도정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종교계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상민기자

2026년 미래이음 장학금 장학생 추가모집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2026년 미래이음 장학금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2026년 7월 15일까지**
- 신청대상: **제주4·3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증·고손**
- 지원내용: 도외 대학생 주거·생활비 5백만원 지원
- 자격요건: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도외 지역에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전세 및 기숙사 제외)
- 접수방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 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 ☎744-9810

※ 자세한 사항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www.jiles.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제19주년 기념대회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제19주년 기념대회에 초청합니다.

제주4·3의 해결은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제주4·3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소명을 가지고 모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제19주년 기념대회에 귀하께서 참석하시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일 시 **2026년 7월 16일(목) 09:00**
2. 장 소 **서귀포학생문화원 1층 대강당**
3. 행사내용_ 1부 : 09:00~10:00 영상상영
2부 : 10:00~11:00 가요제
3부 : 11:00~12:00 기념식

2026년 7월 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장 김계담 배상